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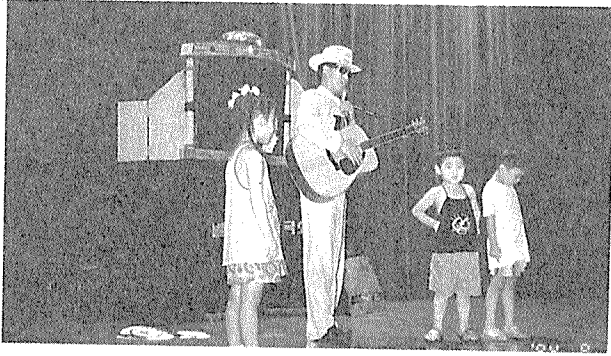
“구로구민 위한 사랑의 공간이고 싶습니다”

구로지역 불우이웃 위해 설립된 이웃사랑실천회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작은 사랑의 공간을 만들었다.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대표 하죽봉 변호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124-72)는, 1년 전 구로지역 내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주지는 생각을 가진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이루어 낸 사랑의 결실이다. 지난 1년간 이들은 어린이 대상 문화 활동, 불우가정 생활비 지원, 불우 청소년 장학사업 등 다양한 이웃사랑 활동을 전개해 왔다.

앞으로 청소년 독서실 운영, 어린이집 위탁 운영 등을 비롯해, 몇년 후에는 사회복지관을 건립해 더 많은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는 한편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이웃사랑실천회의 활동을 소개한다.



이웃사랑실천회는
구로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 내의
뜻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사랑의 공간이다.

• 불우이웃 지원, 문화사업 등 전개

이웃사랑실천회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불우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삶의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다.

노일래 이웃사랑실천회 사무국장은, 『이런 목적 하에서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극빈가정·소년소녀가장·경로당·노인회 등에 대한 지원, 장학사업, 노인·어린이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장애인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등이 그동안 우리 단체에서 해 온 일들입니다.』라고 실천회의 활동을 간단히 소개한다.

• 구민 건강 위한 특별강좌도 마련

이들이 하는 활동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열렸던 “이웃사랑 한마음 문화제”다.

서울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구로구에서 벗어나서, 청소년에게는 올바른 문화의 향기를, 노인들에게는 보



이들은
불우가정 지원,
장학금 지급,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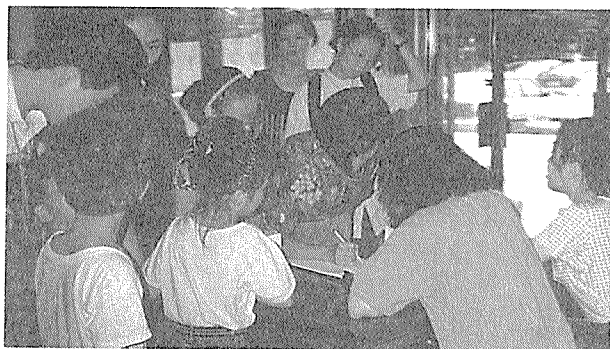
다 나은 휴식의 공간을 줄 수 있는 구로구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마련되었던 것이 이 한마음 문화제.

노인 청장년층을 위한 인간문화제 박동진 옹의 국악마당, 구민 건강을 위한 특별 건강강좌, 청소년층을 위한 개그한바탕,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인형극 등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마련된 이 행사들은 지역주민을 한마음으로 만들기에 충분했고, 그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장애인 8쌍 무료 합동 결혼식(불수레 사랑나눔회 주최)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들 중 몇 쌍의 신혼여행 경비를 대주기도 했다.

• 매 분기마다 후원회 회의 가져

이웃사랑실천회의 후원회의 구성원과 후원자들은 대부분 지역의 유지들이다. 지역의 변호사·의사·목사·시의원 등이 후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매 분기마다 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향이나 내용을 정하기도 하고 필요한 후원금의 규모나 모금방법 등을 의논하는 등 실천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구민들의 생활실태 등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웃사랑실천회는
앞으로
사회복지관을 건립해
보다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

• 앞으로 사회복지관 건립 계획

오는 11월초 창립 1주년을 맞는 실천회는, 10월 중에 청소년 독서실과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관을 건립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문화적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건립기금을 모금 중에 있다.

• 구로지역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때를 맞이 해서 얼마 정도의 성금을 내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높여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가치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웃사랑실천회의 활동은 이 세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구로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